

# 2022년 1~2월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2. 3. 16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## ● 요약

### ○ (수출) 1~2월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6.3% 증가

- 올해 수출은 작년 12월에 대비 수출증가폭은 둔화했으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
- 집적회로, 자동차 부품 등 반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수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중국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

### ○ (수입) 1~2월 중국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5.5% 증가

- 주요 수입품의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요인으로 올해 수입은 예상치보다 낮았으나,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실적 유지
- 최근 우크라이나-러시아 사태 이후 글로벌 수출입 차질 등의 영향으로 중국 수입증가세는 다소 둔화 전망

## 1 수출입 동향

○ 1~2월 수출액은 16.3% 증가한 5,447억 달러, 수입액은 15.5% 증가한 4,287억 5천만 달러, 무역수지는 1,159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

- 수출은 2020년 5월 이후, 수입은 2020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, 2020년 12월 이후 수출입 모두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임

### 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'22.1~2월
수 출	24,874 (9.9)	24,984 (0.5)	25,906 (3.6)	33,640 (29.9)	5,447 (16.3)
수 입	21,356 (15.8)	20,769 (△2.8)	20,556 (△1.1)	26,875 (30.1)	4,287.5 (15.5)
수 지	3,518	4,215	5,350	6,764	1,159.6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금년도 1~2월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.9% 증가한 9,734억 5천만 달러로, 2015년 이래 같은 기간 최대 실적 기록. 주요 원인은 RCEP 관세인하 효과, 해외 수출입의 코로나19 영향 약화,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임
  - RCEP 발효 이후 무역 관세인하 혜택, 원산지결정 재료누적기준 적용 등의 긍정적 영향으로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가 증가하였고, 초기 무역 창출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
  - 유럽과 미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의료용품 수요는 감소했으나 여행 관련 의류 및 부자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함
  -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해외시장 PPI와 CPI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해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 수출입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임
- 당분간 중국 수출입 증가세 유지가 전망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-러시아 사태 및 중국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
  - 집적회로, 자동차 부품 등 반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여전히 크며, 단기간 동안 중국의 수출증가세 유지 전망
  - 주요 수입품 가격 상승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1~2월 중국의 수입은 예상치보다 낮았으나,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실적 유지
  - 우크라이나-러시아 사태 영향으로 중국-유럽연합(EU) 화물열차 운행 등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유럽 무역에 어려움이 예상됨
  - 중국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산공장의 조업중단 및 일부 항만의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수출입에 영향

### 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해관총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1~2월 중국 대외무역 수출 및 수입은 양호한 실적을 유지함</li> <li>- 중국의 RCEP 협정국 간 총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.5%(위안화 기준) 증가하였고, RCEP 회원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파급 효과는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</li> </ul>
	대외경제무역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~2월은 춘절(구정) 연휴가 있는 대외무역 비수기임에도 중국 수출입은 증가세를 유지했고, 특히 수출 강세를 보임</li> <li>- 올해 주요 해외시장 생산 및 수출이 회복되면 상대적으로 중국산 완제품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중간제품의 수출 비중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수출 구조 변화가 예상됨</li> <li>- 올해 수출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낮을 수 있지만, 전반적으로 중국 대외무역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</li> </ul>
	광다증권 (光大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~2월 중국 무역 흑자는 전년 대비 19.5% 증가하여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, 1분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</li> <li>- 전반적으로 산업재 및 여행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고, 가전제품 수출은 하락함</li> <li>- 1~2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04% 증가하였으며, 전년도 12월 자동차 수출증가율인 42%보다 높았음</li> </ul>
	차이신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~2월 수입증가율(15.5%)은 작년 12월 수입증가율(19.5%) 보다 낮았는데 이는 중국 내 산업생산 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</li> <li>- 최근 해외시장의 중국산 기계 및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약세로, 1~2월 중국 휴대폰 및 가전제품 수출의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량은 감소함</li> <li>- 올해 주요 국가 해외시장 생산 회복에 따라 중국의 수출 대체 효과는 둔화할 수 있으나,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</li> </ul>
해외	로이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해외 탄력적 수요 영향으로 중국의 1~2월 수출은 예상치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냈으며, 다수의 수출기업이 3년 연속으로 춘절 연휴 기간에도 생산을 지속한 영향이 큼</li> <li>- 1~2월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41.5% 증가, 수입은 35.8% 증가하였으며 수출입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임</li> <li>- 우크라이나-러시아 사태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무역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</li> </ul>
	블룸버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~2월 수출은 예상치 14% 보다 높은 16.3% 증가하였으나, 수입은 예상치 17% 보다 낮은 15.5% 증가</li> <li>- 우크라이나-러시아 사태 영향으로 올해 중국 수입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</li> </ul>
	SCM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~2월 수출증가율은 16.3%로 전년도 12월 수출증가율 29.9%보다 감소하였으며 수출 성장세는 둔화함</li> <li>-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ASEAN 수출액, 수입액은 각각 전년 대비 13.3%, 12.8% 증가하였으며, 1~2월 대비 무역 흑자는 595억 7,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.6% 증가함</li> <li>- 우크라이나-러시아 사태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 하락압력이 가중되면서 올해 중국은 자국 내 생산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</li> </ul>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2. 3. 9)

- (국가별 동향) 미국(13.8%) 및 EU(24.2%), ASEAN(13.3%), 중남미(20.4%), 아프리카(14.6%)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
  - 동북아경제권 내 홍콩(3.7%), 일본(7.5%), 한국(18.9%) 및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0.9%)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
  - 수입의 경우, ASEAN(12.8%), 중남미(4.9%)를 포함하여 대만(19.7%), 한국(16.6%), 미국(8.3%), 일본(6.9%)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EU(△0.2%), 호주(△2.3%), 독일(△1.9%) 지역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보임

**< 1~2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**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증감률	국가별	금액	증감률
1	미국	915	13.8	*ASEAN	603	12.8
2	*EU	914	24.2	*EU	458	△0.2
3	*ASEAN	763	13.3	대만	400	19.7
4	홍콩	469	3.7	한국	343	16.6
5	*중남미	375	20.4	*중남미	328	4.9
6	일본	271	7.5	미국	318	8.3
7	한국	237	18.9	일본	303	6.9
8	*아프리카	237	14.6	호주	215	△2.3
9	베트남	201	0.9	아프리카	195	40.3
10	독일	192	16.4	독일	178	△1.9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      \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5.1%), 2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3.3%), 3위 집적회로(비중 3.3%) 등의 수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.7%, 6.1%, 27.7% 증가
  - 수입 1위 품목인 집적회로(비중 11.2%)는 전년 동기 대비 수량은 4.6% 감소했으나 금액은 19.2% 증가. 2위 원유(비중 8.2%)는 전년 동기 대비 수량은 4.9% 감소했으나 금액은 43.0% 증가
  - \*(참고) 수출입 단가 상승 요인으로 1~2월 중국 주요 상품의 수출입 증가율에서 금액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, 수량 기여도는 감소함

**< 1~2월 중국의 TOP10 수출 품목 >**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394	9.7	5.1
2	의류 및 부자재	-	-	255	6.1	3.3
3	집적회로	470억 개	0.5	252	27.7	3.3
4	방직실 및 직물	-	-	247	11.9	3.2
5	휴대폰	12,893만 대	△20.6	232	1.2	3.0
6	플라스틱제품	-	-	160	14.7	2.1
7	가전제품	54,911만 대	△7.9	141	△3.6	1.8
8	자동차부품	-	-	125	5.2	1.6
9	철강	823만 톤	△18.8	119	34.4	1.5
10	가구 및 부품	-	-	112	2.2	1.5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*< 1~2월 중국의 TOP10 수입 품목 >**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집적회로	920억 개	△4.6	688	19.2	11.2
2	원유	8,514만 톤	△4.9	507	43.0	8.2
3	철광석 및 정광	18,108만 톤	0.0	190	10.2	3.1
4	천연가스	1,986만 톤	△3.8	132	△34.6	2.1
5	식량(곡류)	2,502만 톤	0.6	123	81.6	2.0
6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04	28.4	1.7
7	동광석 및 정광	418만 톤	10.2	102	26.4	1.7
8	미단조 동 및 동재	969,289 톤	9.7	97	19.6	1.6
9	자동차부품	15만 톤	△4.8	95	33.7	1.5
10	초기 형태의 플라스틱	493만 톤	△12.2	93	12.7	1.5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- 2월 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의 50.1보다 소폭 증가한 50.2 기록, 생산자물가지수(PPI)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.8%, 0.9% 상승
  - 2월 PMI는 4개월 연속 기준선(50)을 상회하였으며,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생산 안정화, 제조업 생산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등이 있음
  - 석탄, 비금속광물 등 일부 국제원자재 및 산업재 가격의 전월대비 하락세 영향으로 2월 PPI(8.8%) 또한 전월 대비 하락하였고, 2월 CPI(0.9%)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'22.1월	2월	
경제성장률(%)	6.7	6.0	2.2	8.1	-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9.0	8.0	△3.9	12.5	-	-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5.9	5.1	2.9	4.9	-	-	
산업생산 증감률(%)	6.2	5.7	2.8	9.6	-	-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(%)	49.4	50.2	51.9	50.3	50.1	50.2	
소비자 물가지수 CPI (%)	2.1	2.9	2.5	0.9	0.9	0.9	
생산자 물가지수 PPI (%)	3.5	△0.3	△1.8	8.1	9.1	8.8	
실업률(기말, %)	4.9	5.2	5.2	5.1	-	-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350(3.0)	1,381(2.4)	1,444(4.5)	1,735(20.2)	158.4(17.6)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0,727	31,079	32,165	32,502	-	-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6174	6.8985	6.8974	6.4512	-	-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621 (14.1)	1,362 (△16)	1,326 (△2.7)	1,629	13,329 (13.1)	13,005 (16.0)
	수 입	1,065 (8.8)	1,072 (0.7)	1,089 (1.5)	1,386	13,165 (22.3)	10,396 (15.2)
	수 지	556	290	237	242.8	1.6	26.1

출처 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  
 주 : 2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